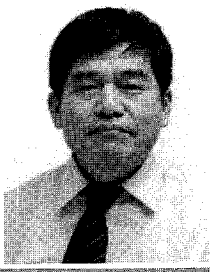
민통련과 민청련



전 민청련 부의장 권 형 택

서울대, 민청련 동지회장,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사무총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문위원

민통련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격동의 시기에 함께 했던 동지들이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새로운 시대로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시기 역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진지한 토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인 것 같다.

민통련과 관련한 기억을 더듬어 가보면 맨 먼저 민통련으로 통합되기 전 시절의 민중민주운동협의회(민민협) 사무실이 떠오른다. 내가 처음으로 민청련 집행부에 들어가 사회부장을 맡았던 것이 1984년 9월이었는데, 당시 내가 하는 일이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의 투쟁을 지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민중운동단체들의 협의체였던 민민협에 자주 드나들었다. 당시 민민협 상임대표가 이부영 선생이었고, 간사로 지금은 서울시의회 의원이 된 정선순씨가 있었다. 사무실이 종로2가 뒤쪽 골목 어딘가에 있었는데,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곳에서 대책회의를 많이 하였다. 사무실에 들어가면 입구 쪽 큰 탁자에 각 단체에서 발표한 성명서 등 유인물들이 가지런히 잘 정돈되어 있고, 자그맣고 깔끔하고 예쁜 정 간사

가 반갑게 맞아 주던 기억이 지금도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다음 해 민통련으로 통합되고 나서는 민중 관련 대책모임 장소가 장충동 민통련 사무실과 신길동 노협 사무실로 옮겨졌는데, 통합 이후로 민중생존권 지원활동도 훨씬 활발해졌던 것으로 기억된다. 통합 전에는 민청련이 주도하는 민민협 쪽과 명망있는 재야인사들의 모임인 국민회의 쪽 양쪽으로 활동력이 분산되어 지장이 많았는데, 통합 후에는 민청련 등의 조직적 역량과 재야 어른들의 명망성이 결합하여 좀더 힘있는 투쟁이 민중생존권투쟁 부분에도 이루어 질 수 있었다.

민청련은 창립 당시부터 대중노선과 조직운동을 표방하면서 민족통일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실현할 주체로서 민중의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에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존권투쟁에 대해서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성명서을 발표하거나 지원하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지원집회를 조직하는 등의 활동을 무엇보다 중시하였다. 이런 활동의 일차 책임부서가 사회부였기 때문에 나는 사회부장으로서 주로 민중들의 투쟁현장을 찾아다니고 그들을 지원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이런 활동과정에서 참으로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여러 운동가들을 많이 만나 함께 일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질 수 있었다. 민중투쟁 현장에는 어김없이 나타나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었던 장기표 선생, 언제나 씩씩하고 당당한 원풍모방 노조위원장 출신 방용석 선생, 지금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명쾌한 논리와 불굴의 투지로 우리를 감탄케 했던 김문수 선생 등이 그때 만났던 뛰어난 민통련의 운동가들이었다. 민청련에서는 박종만 열사 영안실 투쟁에서 열렬한 몸짓을 보여주었던, 지금은 고인이 된 안희대 선배, 중부경찰서로 잡혀간 노동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길바닥에 드러눕는 것을 가르쳐 준 박우섭 선배, 청계노조의 민종덕, 박계현, 황만호, 김영대 동지 등이 민중투쟁현장마다 빠지지 않는 훌륭한 운동가들이었다. 그밖에도 당시 젊음을 바쳐 헌신적으로 일했던 수많은 현장활동가들과 해고노동자들의 희생과 열정은 지금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다.

85년 6월부터 민청련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었다. 김병곤 형이 6월에 맨 처음 구속되었고, 곧 이어 김근태 의장이 구속되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고문 속에 간첩으로 조작되고 있었다. 뒤이어 최민화, 김희상, 연성수, 김종복 등 민청련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던 그 해 10월, 나는 어수선한 속에서 어찌어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결국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치안본부 수사관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새 신부와 이별하고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직행하여 한동안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비극적(?)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군사정권의 엄청난 음모가 진행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신혼여행의 단꿈에 빠져 여행 내내 치안본부 요원들이 감시와 미행을 하고 있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체포되어 압송되어 오던 중에 내 딴엔 새 신부 안심시킨답시고 수사관들을 꼬득여 함께 강릉 경포대에서 생선회에 소주를 마시며 호기를 부리고, 귀경하는 압송 차 속에서 코를 골고 잠이 들어 새 신부와 수사관들을 어이없게 만들었던 에피소드도 오랜 추억의 한 장면으로 남아 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야만의 시대를 겁없이 살아왔다는 생각도 든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1987년의 정권연장 시기를 앞두고 이에 저항하는 학생운동, 민청련, 민통련, 민추협 등 모든 민주화운동을 굴복시키려는 작전을 개시하였던 것이고, 그 1차 목표가 민청련, 그 대표였던 김근태 의장이었던 것이다. 엄청난 고문 속에 김 의장을 간첩으로 몰아가려했던 저들의 기도는 결국 김 의장의 초인적인 저항과 부인 인재근씨의 기지에 의한 고문의 폭로, 그리고 민통련을 비롯한 민주진영의 즉각적인 반격으로 실패로 돌아갔고, 그들의 일련의 작전계획도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지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태풍의 눈을 통과했던 당시를 생각하면 한편 아찔한 느낌이 들면서도 우리가 그 태풍에 굴복하지 않고 의연히 싸워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감사와 자부심을 느낀다.

87년 6월항쟁 당시 우리 민청련은 김근태, 김희택, 김병곤, 박우섭 등 선배들을 감옥에 둔 채로 적은 힘이나마 함께 모아서 열심히 싸웠다. 그리고 6월항쟁의 승리로 김근태 선배를 제외한 나머지 선배들이 모두 석방되고 나서 87년 9월, 민청련 9차 총회에서 김희택, 김병곤, 박우섭, 그리고 나, 이렇게 네 사람을 의장단으로 한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이 당시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김희택, 김병곤 두 선배가 보여준 감동적인 장면이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당시 김희택 선배가 연배로 보아서 의장을 맡는 게 순리이기는 했지만 김 선배는 김병곤 형의 활동력이 출중하므로 나이보다는 능력 중심으로 의장을 맡아야 된다고 주장하여 두 사람 간에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결국 김병곤 형의 완강한 고집을 못 이기고 김희택 형이 의장을 맡는 것으로 낙착이 되었는데 당시 그 자리를 함께 했던 나로서는 참으로 감동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이 장면은 김병곤 형의 선배에 대한 예의와 겸양지심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 저변에는 김병곤 형의 정세판단도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즉 김병곤 형은 당시 민통련으로 민족민주운동의 모든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민청련 의장보다는 민통련의 정책실 차장으로서 역할을 선택했던 것 같다. 언제나 명예보다는

전체 운동을 앞세우고, 대의를 위해 서슴없이 몸을 던지는 투사의 모범을 보였던 형의 큰 모습이 지금도 눈 앞에 삼삼하다.

87년 대선에서 양 김씨의 분열과 민주세력의 분열로 결국 노태우에게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그 책임을 둘러싸고 민청련, 민통련 모두 심각한 후유증을 앓았다. 대선 당시 민청련은 개운사집회와 고대집회에 양 김씨를 초청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였고, 오랜 내부 토론 끝에 김대중 후보 비판적지지를 맨 처음 결정하여 민통련의 비판적지지 결정을 선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보다 치밀한 학술적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차치하고, 당시 대선 결과가 민주세력의 패배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민청련도 그 책임의 일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를 회고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자긍심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민청련의 간부와 회원들 모두 당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 사심없이 진지하게 토론했고, 내려진 조직의 결정에 승복하여 실천하였다는 점이다. 당시 민통련 가맹단체를 포함하여 많은 운동가들과 조직들이 대선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경우 조직의 해체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민청련만은 그 후로 조직의 변화 발전 속에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험난한 역경 속에서도 지켜온 민주적 토론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8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실패했지만 민주화의 물결은 도도히 흘러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져 민주세력이 정치의 주도 세력이 되는 엄청난 변화를 이루어냈고, 민주주의의 심화발전과 평화적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성취해 내야 하는 역사적 도약의 시점에 서 있다.

민통련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격동의 시기에 함께 했던 동지들이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새로운 시대로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시기 역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진지한 토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인 것 같다.